



삼성물산건설 이상대사장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TOP 10 도전

“외형을 위주로 한 국내 1위 경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질 위주 경영과 과감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10’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규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로 건설업 진출 30년을 맞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건설업체 중에서는 이 회사보다 역사가 긴 회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강자’로서 국내외 건설시장을 휘젓고 있다.

‘삼성건설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은 국외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침체된 국내 수주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양적으로 국외공사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피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국외공사들을 선택해 수주하겠다는 의미다.

세계 최고층으로 기록될 부르주아비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이 사장은 “최근 들어 EPC(설계·구매·시공),



설계시공(Design Build), 자금 공여형(Financing) 공사 등으로 국외공사 발주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발주형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수주전략도 마련한 상태다. '하이테크, 초고층 등 건축 분야'는 선진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고 '교량, 항만, 터널 등 토목 분야'는 후속공사 연계수주가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사를 선별 수주할 계획이다.

또 '발전·유화 분야'는 EPC 형태의 대형공사 수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은 수주 이전 단계서부터 현지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국외공사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양질의 국외공사를 수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일 규모라도 양질의 공사는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도 후속공사 연계수주가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신규 외국시장에서 수주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파트너십이 형성된 외국 건설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국외공사 수주목표를 10억달러로 잡고 있는 삼성물산은 UAE를 포함한 중동시장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지역 주요 거점지역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부 동남아 신규시장에 대한 영업기반을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  
세계 유일의 건설사로  
인정받고 있는  
초고층 분야와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장대교량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초  
고층 건물과  
장대교량 등  
핵심상품에 대한  
수주를 확대할 계획  
”

이 사장은 "부르주두바이 프로젝트와 같이 우수한 국외 프로젝트를 적극 수주해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과 영업경쟁력으로 인정받겠다"면서 "인도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신규시장에 대한 수주영업 기반을 확대해 미래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시장다변화 전략도 함께 추

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한 수주는 지양하고 비교적 경쟁상대가 적고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 기법들을 개발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차별된 경쟁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삼성물산에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핵심상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명품기술 17선을 확보한 삼성물산은 이들 핵심상품에 대한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시장에서 성패는 결국 기술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세계 3대 마천루 공사에 참여한 세계 유일의 건설사로 인정받고 있는 초고층 분야와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장대교량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과 장대교량 등 핵심상품에 대한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는 하이테크, 항만, 터널, 발전·유화 분야 등에 대한 수주 영업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이진우 기자]